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26)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시고 살아 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 제1독서

사도 5,12-16

• **입당송** 1베드 2,2 참조

•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ㄴ(◎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겨워하세.◎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묵시 1,9-11ㄴ.12-13.17-19

• **부속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0,19-31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를 전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예수님의 표징을 전하며 그분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정하신 주님, 세상을 이끄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정의를 심어 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좇기보다 세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실천하게 하소서.

3. 선종하신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세상 속 가난한 이들을 보듬고 당신의 자비와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고자 헌신했던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인자로우 굽어보시어, 당신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영혼에 빛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저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평화이신 주님, 작은 어려움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참된 평화를 얻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교회]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4월 21일 오전 7시 35분(현지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평생을 겸손하고 청빈하며 소탈한 삶을 이어가시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특별한 장식 없이, 오직 이름만 새겨달라"는 교황님의 부탁에 따라 장례에 관한 절차 및 진행은 검소하게 치뤄질 예정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미사]



- ▶ 일 시: 2025년 4월 26일 (토) 12:00 pm (UAE 시간)
- ▶ 장 소: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
- ▶ 주 레: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

Pope Francis (1936 ~2025)



IN LOVING
memory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평화를 전하셨던 교황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 특별 중계: 가톨릭 평화 방송 cpbc TV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동포 여러분

Farrell 추기경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라는 선종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저는 슬픔과 고통, 외로움보다는 고요한 평화를 봅니다. 그분은 슬퍼하기보다 우리가 평화롭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멋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교황님에 대한 큰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예수님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발코니에서 전 세계인에게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용서가 복수를 이겼습니다. 악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한 손을 그분의 크고 강한 손에 위탁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희망의 순례자가 되고, 사랑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인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움직여 행동으로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의 삶을 보여주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한국의 교형자매 여러분, 동포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서 희망과 부활을 보았으며, 우리 자신이 또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이웃과 사회로 나아가갈 용기를 얻습니다.

한국의 대전이라는 지방 교구의 교구장을 전 세계 성직자와 부제, 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사제의 쇠신없이 교회의 쇠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황님을 가까이 보좌하면서, 그분이 바라는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늘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으셨던 교황님의 발자취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며 형제와 가족이 갈라진 이 크나큰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당신께서 직접 북에도 갈 의향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교황님의 기도 가운데 한국에 관한 기도에는 남과 북이 모두 포함된 기도였음을 기억합니다.

화해와 평화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선이 있다고 믿으셨던 교황님의 다음 말씀이 오래 우리 안에 살아있길 함께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부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2025년 4월 22일 바티칸에서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 드림

[쿠웨이트] 세례성사 및 첫영성체



- ▶ 일 시 : 4 월 25 일 (금), 15시
- ▶ 장 소 : 성가정 성당 GSH
- ▶ 대 상 자 : 김주완 그레고리오

※ 복되고 뜻깊은 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도 받은 소중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바이] 견진성사

- ▶ 일 시 : 4 월 26 일 (토), 15시
- ▶ 장 소 : 제벨알리 성 프란치스코 성당
- ▶ 대 상 자 : 허정열 아델라이데 / 백영아 효주아네스
이은영 힐데가르트 / 박경혜 마리안나
박순용 저스틴 / 안지은 엘리사벳 (총 6명)



Sacrament of Confirmation

※ 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5 월 3 일 (토)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 번호: 1004)
- ▶ 안 건 : 1) 공동체 별 활동 보고 2) 성모성월 특강 등

[교종 프란치스코] 4월 기도 지향

4월: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 한 인
AKCCME 가 톨릭
공동 체
모습들

<카타르 공동체>



<쿠웨이트 공동체>





‘주님 부활 대축일’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CME가
통리
공동체
모습들

<두바이 / 아부다비 공동체>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위령 기도



Pope Francis

(1936 - 2025)

-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굳게 믿으며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남아 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CPBC -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4> 안식일과 주일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자랑하던 학생이 묻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탈출 20,8)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이 주일인가요?” 가톨릭교회에서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낯설 수 있습니다. 안식일(토요일) 대신 일요일이 주일이 된 이유를 신자들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토요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신약시대에 와서 일요일(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주신 해(日)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범죄로 어둠 속에 헤메는 인간에게 빛을 주신 날입니다.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을 창조하신 빛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 거룩히 지냈습니다. 일요일은 부활,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업의 승리를 거두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출범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사도 20,7) 그러므로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주일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 된 이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 쉬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주일 미사 참여 의무

신자들이 주일이 되면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6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법상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쉬어야 하는 규정은 1234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칙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교회법에서 정한 법규)

교회법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 노동을 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

- ① 미사에 참례하는 것입니다.
- ②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 노동을 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법 제1246 ~ 1248조 참조)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소금 한 꼬집



우리의 **부활**은 마치
봄에 메마른 가지를 뚫고
움터오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목련 꽃잎처럼 잔잔히,
그러나 힘차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